

6유쾌한 사랑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

2016 Winter Vol.20



FOCUS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방화동 아이들의 이야기'	/ BF
생생정보Talk	북한이탈주민이 알려주는 찰기장떡 만들기	/ BI
유쾌한이야기1	자살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2016 방화나눔축제 '하하하'	/ BJ
유쾌한이야기2	희망도 '두 배', 꿈도 '두 배'가 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CB
유쾌한이야기3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희망의 등대', 5년간의 발자취	/ CD
방화6NEWS	10월~12월 복지관 주요활동 한 눈에 보기	/ CF
유쾌한이웃1	우리 마을 따뜻한 이웃, '애플'	/ CJ
유쾌한이웃2	2016년 자원봉사자·후원자 만남의 날 '함께하는 이웃, 함께웃는 방화'	/ DB
참, 고맙습니다	따뜻한 이웃, 선한 이웃 소개	/ DD

안녕하세요.

아이-듬 123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손유리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매주 1번씩 언니, 오빠들과 모여서
우리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올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사소한 것들도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이 되기를 바래요.

2017년에도 우리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미래가 건강한 방화동이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듬 123 프로젝트 참여자 손유리 드림)



어깨동무

벌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큰 희망과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새로운 날들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고 좋은 한 해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스무 번째 소식지는 어깨동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친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의 키도 맞아야 불편하지 않고, 내 한쪽의 어깨도 상대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어깨동무란 '상대편의 어깨에 서로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섬'이라는
뜻이 있듯이 2016년을 돌아보면 주민과 함께 서로가 키도 맞춰 보고,
어깨도 내어주며 나란히 선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이웃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름답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6유년향년 사랑고

표지해설

열아홉번째 표지모델 아이-듬 123 프로젝트 참여 아동 김동환, 손유리, 김서진



'함께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는 시끌벅적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으며 친구, 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부터 햇수로 4년 동안 참여한 아이들 모두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고 건강·영양에 관한 척척박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함께 성장할 아이-듬 123 프로젝트를 응원해주시고 방화동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ontents

FOCUS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방화동 아이들의 이야기'	/ BF
생생정보Talk	북한이탈주민이 알려주는 찰기장떡 만들기	/ BI
유쾌한이야기1	자살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2016 방화나눔축제 '하하하'	/ BJ
유쾌한이야기2	희망도 '두 배', 꿈도 '두 배'가 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CB
유쾌한이야기3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희망의 등대', 5년간의 발자취	/ CD
방화6NEWS	10월~12월 복지관 주요활동 한 눈에 보기	/ CF
유쾌한이웃1	우리 마을 따뜻한 이웃, '애플'	/ CJ
유쾌한이웃2	2016년 자원봉사자·후원자 만남의 날 '함께하는 이웃, 함께웃는 방화'	/ DB
참, 고맙습니다	따뜻한 이웃, 선한 이웃 소개	/ DD

발행인 김성미 | 편집인 남정교 양종철 오영지 이미진 | 발행처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전화 02-2666-6181~3 | 팩스 02-2666-6184 | 홈페이지 www.banghwa6.or.kr
주소 서울시 강서구 금녕화로 23길 25(방화동, 방화6단지아파트) | 디자인/인쇄 리치애드

'어울림으로 깨우치고 동무와 함께 무럭무럭 자랍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함께할 것인지를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묻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함께하며 신체건강, 사회성 강화, 문화역량 등 영역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성장이야기,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아이-듬 123 프로젝트’ ”

* '아이-듬 123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리듬'있는 신체활동과 영향생활을 실천하고, 가족들로부터 '듬뿍' 담긴 사랑을 받아, '듬직'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 가족, 마을 주민 모두 함께 방화3동 아동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편식, 불규칙한 식생활,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13년부터 한국암웨이와 함께하는 건강지킴이사업 '아이-듬 123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이들이 모여서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활동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튼튼!

“신기한 운동기구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니 땀을 흘려도 재미있고 계속 더 운동하고 싶어요!”
“저는 키가 5cm나 크고 근육량도 1.5kg 더해졌어요! 성장점수는 18점이나 올랐어요!”

지난 1년간 아이-듬 123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건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뉴스포츠 신체활동, 파이토칼라 요리활동, 푸드브릿지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고 신체가 튼튼할 수 있게 운동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건강생활을 실천한 결과,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고 근육량도 늘어나는 등 신체가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마음이 튼튼!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건강한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더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하고 같이 맞춰서 뛰어보자! 같이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튼튼! 키가 쑥쑥! 자란 것처럼 마음도 성장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함께하는 친구, 어르신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나누며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고 실천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참여한 아이들끼리 친해지며 서로 돕고 언니가 동생을 챙겨주며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성장이야기, 문화적 주도성이 무럭무럭 ‘방화동 꽃이 피었습니다’ ”

* '방화동 꽃이 피었습니다'는?

방화동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꽃으로 피어난다는 뜻으로, 아이들이 만드는 문화축제를 통해 스스로 잠재력을 확인하고 주도성을 길러 미래의 리더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방화지역교육복지협의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하며 공동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아이들과 주민들, 기관의 뜻이 모여 2012년부터는 방화지역 아동·청소년 문화축제 “방화동 꽃이 피었습니다”를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2일, 벌써 올해로 다섯 번째인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가 꽃 피는 동네!

“방화동에서 댄스, 오케스트라, 난타 등 공연도 다양하고 체험,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니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같은 반 친구끼리만, 같은 학교 내에서만 공유하던 문화공연을 방화지역 아동·청소년 문화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고 즐기므로써 방화동만의, 아이들만의 문화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지역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하니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하면서 우리 동네만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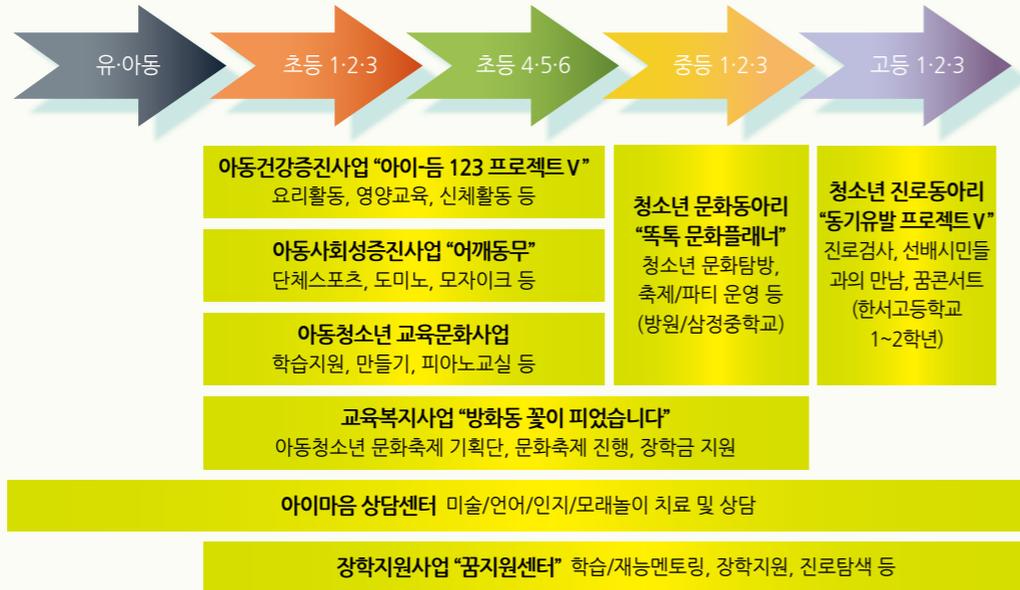


자신감이 꽃 피는 우리!

“우리가 함께 만든 의견이 축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되었어요. 뭉치면 이렇게 멋지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문화축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9월부터 문화축제 기획단 “꽃·계”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또래간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으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듬 123 프로젝트, 방화동꽃이피었습니다 외에도 다양한 아동·청소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주도적 문화형성을 위한 '뚝뚝 문화플래너', 청소년의 진로비전 수립을 위한 '동기유발 프로젝트' 등 방화동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주도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2016년이 되었습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방화동 내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특화사업복지관입니다. 2017년도에도 아동 청소년의 신체, 심리, 정서, 교육,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FOCUS

방화6의 유쾌한 소식! 함께 축하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사업 관련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



한국암웨이 건강지킴이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유공기관' 표창

글 | 이미진 사회복지사, 임하은 사회복지사

생생정보Talk!

북한이탈주민이 알려주는 찰기장떡 만들기

우리가 설날에는 떡국을 함께 나눠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나눠 먹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떡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대신 쌀이 귀하기 때문에 잡곡으로 만든 떡이 발달하였고 떡 또한 지방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요리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찰기장떡 만들기



1 찰기장쌀을 하루 전에 불려놓는다.



2 불려놓은 쌀은 방앗간에 가져가서 쌀가루로 만든다. (방앗간에 가서 쌀가루를 만들 때 '한 번만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더욱 더 쫄깃쫄깃한 식감의 떡을 즐길 수 있다.)



3 찜기를 활용하여 찰기장쌀가루를 익힌다. (쌀가루를 익힐 때 소금을 살짝 넣으면 떡이 싱겁지 않다.)

4 쌀가루가 익는 동안 고물을 만든다.

5 떡이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고물을 묻힌다.

떡고물 만들기

원하는 취향대로 고물을 만들어 먹으면 된다. 북한에서는 팔고물을 해먹거나 그냥 설탕을 찍어서 먹기도 한다고 한다.

팔고물 만들기

- 팔을 미리 불려놓고 삶는다.
- 팔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팔을 으깨주고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한다.
-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서 고물을 만든다.

자살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2016 방화나눔축제 하하하

자살문제? 우리동네는 안녕한가요?

인구 10만 명당 27.3명. 우리나라는 13년 째 OECD국가 중

자살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강서구는 2015년 한 해 동안만 12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자살문제, 뉴스나 신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현실입니다.

우울감, 고독감, 사회적 역할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나눔축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 보실까요?



방화동을 '하하하' 웃게 하자!

10월 15일과 16일, 자살위험군 주민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체계 구축 기금마련을 위해 2016 방화나눔 축제 '하하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기금을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눈감이 버릴 수 없네요. 작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이렇게 심각하지는 몰랐어요. 우리 모임 회의할 때 와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회원들이 자원봉사 함께 할 수 있게.”

8월부터 3개월간 주민을 만나고, 상가에 방문하였습니다. 방화동 인근을 넘어 동대문, 김포까지 크고 작은 기업들과 물류센터들에 후원을 제안하였습니다. 37곳의 지역상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8개의 지역단체와 6개의 주민모임, 154명의 주민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물품판매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업, 상가로부터 의류, 잡화, 도서 등 2,000여 종의 물품을 후원받아 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방화나눔축제, 주민의 정성과 나눔이 모여 방화동이 활짝 웃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화나눔축제를 만들어주신 분들

BBQ 방화역점,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강서구청 청소관리팀, 강서화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개화부동산, 개화약국, 계성삼계탕, 고향집생고기, 구정평기단, 귀뚜라미복지재단, 꽃보라플라워, 나눔행복봉사단, 누구나강좌, 늘만나한 밥상터, 다마트약국, 더팬, 동기유발프로젝트, 동성약국, 두로카리스마, 들내음, 레몬트리, 루이스웍스, 마틸다, 매드스킨, 모닝아트, 미래푸드, '미생(美生)' 동네한바퀴 참여 어르신과 생명보듬이, 바다선생, 바다여행, 바르게살기위원회, 방화근린공원 사무실, 방화동족발, 방화동쭈꾸미, 방화동청소년모임, 방화프라자약국, 백양세탁소, 복지수퍼, 빛은 개화산점, 사단 법인서울지역자활센터, 삼겹랜드, 삼정약국, 삼정중학교 절전부, 상록어린이집, 세븐일레븐 방화역점, 솔공방, 식생활강사네트워크, 신도리코, 씬촌, 아이듬-123프로젝트, 아이티컴, 애즈핏, 애플, 어린이재단, 에레스레더피아, 오곡교회, 오렌지나라, 온누리약국, 유미세탁, 이정상사, 이지바이, 임가네떡집, 자율방범대, 좋은날, 지구북, 책의향기,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최영근 교사, 코코수, 큰꿈교육, 큰나무학원, 태화루, 토마토안경, 하늘약국, 한상차림, 한서고등학교, 행복한노우, 호서전문대 네일아트과

사진으로보는 방화나눔축제

생명존중 캠페인 및 생명의 씨앗심기, 파이토칼라 캠페인, 방화동 꿈나무 꿈찾기 체험, 신비로운 미술체험, 페이스페인팅, 수세미 만들기, 과일, 채소 많이먹기 캠페인, 네일아트, 추억사진 찍기, 추억의 책갈피 만들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바람개비 만들기 등 생명존중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웃과 함께 즐기는 체험부스가 있는 **신나는 축제**



의류, 악세서리, 잡화, 문구류, 그릇, 화분, 도서 등 2,000여 종의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자살예방 기금 후원도 하는 1석 2조 **행복한 축제**



파전, 떡볶이, 닭꼬치, 김밥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까지 더해져 맛갈 나는 간식이 있는 **든든한 축제**

글 | 하정민 사회복지사

희망도 '두 배', 꿈도 '두 배'가 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우리 집을 위해 같이 저축하고
저축금으로 집 마련에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결혼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부담은 줄어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꿈'과 '희망'을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인적, 물적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의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을 위한 필수교육 '금융교육'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어서 필요한 정보여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강의를 들으며 느낀
점이 많았고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소득층 창업정보를 처음 들어봤는데 유익한 수업이었고,
사이트(창업자본) 소개 및 꼼꼼한 대출마련법 등 이해하기
쉬운 강의였어요.'
'금융 상식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금융교육을 총 11회기 진행하
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한 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살기 '가족나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새로운 경험, 체험, 관람으로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과도 알게 되어 좋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참가자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행사를 5회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참가자들에게 잠시나마 '쉽'을 선물하고 가족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만기저축자 졸업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 교육에 잘 쓸게요.'
'자녀 교육비로 모아진다는 것에 한 달 한 달이 행복했으며, 7년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간 듯 하네요.'

저축을 시작하고 만기 한, 2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졸업식
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축하면서 어려웠던 점, 보람된
점 등을 자유롭게 나누며 참가자들의 환경 및 저축에 대한 생각
등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졸업한 참가자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의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축이 만기되어 졸업한 참가자, 새롭게 가입한 참가자, 꾸준히 저
축을 유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어우러져 진행 한 교육, 가족행사,
졸업식, 저축관리 등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희망과 꿈이 두 배로 자란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참가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를 활성화하여 참가자 간의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가자들이 우리 마을에 나눔도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글 | 윤국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희망의 등대'

5년간의 발자취

학교가 끝나면...? 집 또는 PC방, 길거리..
 “밤에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저녁시간에는 보통 집에 혼자 있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청소년에게 저녁 시간은,
 외로움과 방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희망의 등대'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 12월까지 약 5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마지막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5년 동안의 긴 시간동안 함께한 활동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2012

- 희망의 등대 첫 만남
-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저녁식사

2013

- 기타(guitar) 레슨
-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나들이

2014

- 예술로 성장하는 시간 : 방송댄스, 보컬교습
- 신입생 교복지원, 동절기 의류지원

2015

- 성장캠프 첫 시작 : 야호~롯데월드!
- 다양한 인성훈련 특별활동 시작 : 인성교육, 드라마심리, 미술활동, 생활체육

2016

- 우리가 함께 만드는 HR활동 확대 : 프로그램 주제선정, 기획 및 결정
- 감성툰백 문화여가활동 확대 : 영화관람, 보드게임 등



희망의 등대 종결파티 'Toast for change!'

2016년 12월 23일, 희망의 등대 종결파티 'Toast for changer'를 진행하였습니다. 맛있는 다과와 즐거운 음악이 함께해서인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보다 앞으로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그동안 희망의 등대와 함께했던 독서토론 동아리 '호박상자' 봉사자들과 희망의 등대 청소년 가족들도 함께 모여 파티를 즐겼습니다. 종결파티에서는 2012년부터의 활동에 대해 리뷰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롯데월드 가서 신나게 논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난 것 자체가 기억에 남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잘 지내고 다들 하고 싶은 것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저희가 말씀도 많이 피우고 예의도 없었는데, 저희에게 잘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매일 갔었던 복지관에 이제는 당분간 가지 않는다는 것에 잠시 아쉬움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언젠간 또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종결파티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희망의 등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연계 및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5년 동안 함께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하고, 이들이 다시 우리 마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선순환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힘찬 도약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간보호사업 '희망의 등대'는 방과후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였습니다.

글 | 심혜수 사회복지사

BANGHWA6 NEWS

2016년 10월~12월 복지관 주요 활동 한눈에 보기

아동&청소년 BANGHWA6 NEWS



독특 문화플래너 '청소년문화축제 및 문화탐방'

10월 22일(토) 및 11월 26일(토), "독특 문화플래너" 문화기획단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청소년 문화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할로윈파티' 및 '일일카페'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지역 내 청소년 약 250명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지역에 본 축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2월 3일(토), "독특 문화플래너" 문화기획단 청소년은 서울시 강북구의 청소년공동체 '꿈'의 '심대문화기획단'과 만나는 문화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 마을 축제로 진행하고 있는 '추락' 축제 기획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했던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문화축제에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이)마음상담센터 '놀이치료신규개설'

아이(이)마음상담센터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놀이치료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으며 대화보다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애발견&강심장 부모모임 가족 문화체험

11월 19일(토), 가족애발견, 강심장 부모모임 참여자 가족들이 모여 나들이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총 7가족 19명이 함께 강화에 있는 옥토끼 우주센터와 피싱파크에서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으며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기유발 프로젝트 '꿈 콘서트'

12월 23일(금), 동기유발 프로젝트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꿈콘서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달 전부터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청소년들은 자신에 꿈과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 진학, 직업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도 우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현하도록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어르신 BANGHWA6 NEWS



귀뚜라미복지재단 '어르신정서지원 자원봉사활동'

11월부터 월 1회, 귀뚜라미복지재단 직원 16명과 지역 내 독거 어르신 8명이 함께하는 결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벗활동과 식사나눔, 문화체험으로 진행되는 결연활동은 매월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어르신들의 또하나의 사회적 가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노후 '요리대회 및 목공체험'

11월 16일(수), 행복한 노후 어르신들은 요리대회를 통해 요리 강사와 함께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요리교실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맛있는 접산적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나눠 먹으며 지역 결속력을 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3일(수)에는 목공 체험 및 작품 전시회를 북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일 강사로 직접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드 트레이 만드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2016년 한 해 동안 만든 작품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카페에서 우드 트레이 만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드 트레이를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좋아했습니다.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미식나눔단' 활동교육 및 간담회

12월 14일(수), 강서구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식나눔단 참여자 24명이 참여하여 치매예방 이론교육 및 체조를 진행하였으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식나눔단' 참여자 10명이 간담회에 참여하여 한 해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즐거운 참여소감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1회 유쾌한 당구장기바둑대회' 개최

12월 7일(수), 당구장기바둑교실에서는 '제1회 유쾌한 당구장기 바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7명의 남성 어르신이 참여하여 당구·장기·바둑 실력을 겨루고 분야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웃의 추천의 받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주민이 각 분야별 심판으로 활동하고, 당구장기바둑교실 이용 어르신의 후원(우승상품)으로 행사를 더욱 유쾌하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구장기바둑교실 안에서 주민들 간 즐거운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미생(美生) 생명보듬이 워크숍'

12월 14일(수), 미생에서는 서울 종로 인근으로 생명보듬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어르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상담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인사동을 함께 구경하며 연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다짐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생(美生) 동네한바퀴 자조모임 '나들이'

11월 17일(목), 미생 동네한바퀴 자조모임에서는 어르신들이 일 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련한 여행기금으로 강화도 일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인근 온천체험과 지역시장, 동막해수욕장 등을 구경하며 자조모임원들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물품 판매,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여행을 간만큼 더욱 더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공간프로젝트
'독특타임&상큼쌈살 레몬생강차 만들기'**

11월 23일(수), 북카페 이용주민 20명이 참여하여 주민간담회 및 레몬생강차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북카페 운영취지를 공유하고, 이웃과 하고 싶은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책모임을 하고 싶어요." 등 행복한 마을 살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북카페 운영에 반영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레몬생강차 만들기에서는 주민이 직접 재료 손질부터 병에 담는 과정까지 북카페에서 판매 할 음료를 주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 주민은 "직접 음료를 만들어서 믿고 사먹을 수 있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음료를 만들어 주민 간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지원사업 '동절기 김장김치 지원'

11월 24일(목)부터 12월 15일(목)에 걸쳐, 어린이재단,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한바다식품, 강서푸드마켓으로부터 김장김치(1박스 10Kg)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총 183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나눔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희망하며 나눔에 동참하신 각 후원처의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거복지페스티벌'

12월 2일(금)과 3일(토), SH공사가 주최하는 주거복지페스티벌에 참여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음료 및 다과 판매, 누구나 강좌 도자기 페인팅 체험부스 및 민화 전시회를 통해 북카페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야기' 공동체 사례집 북콘서트

12월 14일(수), SH공사에서 11곳의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공동체 사례집 '우리가 사는 마을이야기'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례 11곳 중 북카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책에 담긴 각 공동체가 모여 활동을 공유하고 즐기는 북콘서트에 카페지기 3명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주민어울 한마당 '유쾌한 수도'

12월 19일(월), 강심장부모모임, 늘만나한밥상터, 미생, 하나두리이음, 행복한노우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2017년 마을활동 목표를 수립하는 주민어울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웃과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더 행복한 우리동네를 위한 역할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동네 영화제'

12월 29일(목), 북카페에서 우리동네 영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모여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플라익스프레스'를 보았습니다. "북카페에서 영화도 보고 새로운 이웃들과 알게 되니 참 좋네요."라고 참여주민이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이웃과 인사 나누며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강좌 '송년파티'

12월 30일(수), 복지관 강당에서 2016년 누구나 강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강사, 수강주민 모두 모여 한 해의 활동성과 의미를 나누고,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서로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사진 강좌에 참여 했던 한 주민은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이렇게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강좌는 할 일 없고 무료한 나의 하루를 바꿔주었습니다. 나도 사진을 배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누구나 강사가 되는 누구나 강좌는 2017년에도 계속 진행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방화권역 지역사회 조사

11월 4일(금)부터 한 달간 방화2·6·11복지관이 함께 행복한 방화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화동 주민의 사회자본, 지역정체성, 지역문제 인식, 공동체활동 참여 욕구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양질의 사업을 만드는데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방화권역 사례관리 실무자모임 '방화사이' 활동

1월 1회, 방화권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의 모임인 '방화사이-방화동에 사랑을 이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사례관리자들의 친목도모와 사례공유, 독서나눔, '사례관리실천이야기'의 저자인 김세진 선생님과과의 만남으로 지역 내 사례관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사례관리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관 계단 및 복도 벽면 도장공사

11월 21일(월), 방화6복지관 계단 및 복도 벽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벗겨지거나 노후 된 계단과 복도 벽면이 깔끔하고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맞춤형공간 개보수사업 '움트-다(多) 프로젝트'

12월 29일(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하 프로그램실이 아동·청소년 맞춤형공간으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움트-다(多)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꿈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학습 및 모임 공간, 간식 및 석식지원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문성훈 후원자님

“나눔을 통해
마음의 공간을
채웁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금강플라자 상가 1층에 위치한 '애플'의 문성훈 후원자님을 소개합니다.

Q 사장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동 금강플라자에서 '애플'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문성훈이라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자라며 20대 초에 서울로 올라와 방화동에 터를 잡은 지도 20년이 가까워지네요. 혹시 저를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삼촌입니다. 제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소식지에 소개해 주시니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단순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지역 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Q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과거 보육원이나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봉사를 하며, 복지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부터 여러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인연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Q 후원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이 있었나요?

사실 아쉬운 점이라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나눔을 많이 실천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작년에는 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나눔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에 미안했습니다. 2017년에는 나눔을 더욱 더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후원자님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나눔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통한 따스함이 곧 마음을 따스히 하는 것이니까요.

Q 나눔을 실천하며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많습니다.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분들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모자를 하나씩 건네 드리고 따뜻해 하며 서로의 얼굴을 부비며 모자를 만질 때, 목도리 하나를 걸쳐 드렸을 때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고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제가 더욱 더 송구스럽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모자를 팔아야 세도 내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생활을 하겠지요. 하지만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제가 방화동에서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루는 어르신 한 분이 파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감을 구입하여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감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르신께 드실 것을 권유했는데, 어르신이 이게 보잘 것 없어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감을 빼앗듯 쥐고서는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니 그제서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얻는 것이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Q 지역주민으로서 바라는 지역상은 어떤가요?

우리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참여 유도를 활성화하여 사람과 사람, 정이 많은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능 기부도 활성화 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아동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에게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이 없는 진정한 지역 사회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결연사업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많은 것이 있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재능, 기술, 물품 등을 함께 나눈다면 이러한 나눔은 곧 우리 방화3동 지역주민에게 활력소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재능을 나누고 기부를 실천한다면 우리 방화동 이름처럼 꽃피는 사람이 사는 동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 역시 작은 힘을 보태 활기찬 방화3동에 나눔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인터뷰 | 이동준 사회복지사

2016 자원봉사자·후원자 만남의 날

함께하는 이웃, 함께 웃는 방화

방화 6복지관에는 따뜻하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나눔으로 2016년 방화동에 웃음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봉사자, 후원자분들이 즐거워하실까?’ 고민하며 들뜬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지

“주방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 덕분에 매일 다른 건강한 메뉴를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마친 고3학생입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대학 입시를 잘 치루고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사회에 나간다면 베푸는 삶을 사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 꿈인 검사가 되는 데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를 위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원해 주신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공연

“항상 고생하시는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도 대박나세요!”

매일 점심시간 복지관 강당에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때는 율동을 좀 더 크게 해봐요!”, “여기서는 손을 모아 하트 해보면 어떨까요?”라며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며 한마음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2월 6일, 고운사랑 모아 방화동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자원봉사자, 후원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2016년 자원봉사자 후원자 만남의 날 ‘함께하는 이웃, 함께 웃는 방화’에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2016년 활동하면서 미소 짓게 했던 순간을 카드에 작성하여 트리에 걸어보는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보이는 라디오(감사 영상, 축하공연, 스마일트리추첨, 시상), 저녁 식사까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통기타 공연 참 좋네, 노래도 좋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밥도 맛있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 공연도 귀엽고 재미있었어, 점심시간마다 준비하느라 고생했잖어.”

고맙다, 즐거웠다. 인사하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모습에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소중한 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선한 이웃 자원봉사자, 따뜻한 이웃 후원자여러분의 나눔으로 희망을 꿈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방화동에 즐거운 웃음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수봉사자 소감한마디

2016년 방화동에 미소를 전해준 우수봉사자 시상이 있었는데요. 수상자들의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상

| **최영자** 건강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어서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지낼 수 있고요.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고 상도 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영옥** 이미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복지관에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세월을 덧입어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두가 웃음꽃 만발할 수 있으면 합니다.

| **공향동성당**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원동력이 되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최영자(우측에서 두번째)



고영옥



공향동성당

●국회의원상

| **신옥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까 기쁘고 영광스럽네요. 우리 손주들도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해서 더 뿌듯했어요. 급식 봉사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이 이제는 가족 같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상을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 **조형순** 제가 처음에는 침봉기 봉사로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목욕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봉사할 때 힘들지 않고 기쁘기만 해서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지만, 건강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구의장상

| **하은주** 목욕 봉사를 하면서 매주 만나는 어르신들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다가도 목욕을 하고 나면 개운해 하시는 모습과 고생한다는 한마디 해주실 때 보람을 느껴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소한 실천에 어르신들이 감사해주시고 또 만나기를 기대해주시니 저도 계속 만나고 싶어지고 보고 싶은 가족 같아서 매주 봉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복지관장상

| **선한 이웃상 - 송성희** 저는 경로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고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순



하은주



송성희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모여 따스한 빛을 만들어갑니다.



2016년 10월~12월 방화6의 따뜻한 이웃

2016년 4분기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내역

>> 후원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지정후원금	결연후원금 14,044,944
	지정사업후원금 33,951,115
비지정후원금	31,170,230
합계	79,166,289

>> 후원금 지출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장학사업	9,140,000
결연후원사업	2,668,560
사례관리사업	69,620
서비스제공사업	37,511,741
지역사회조직사업	19,184,405
합계	68,574,326

>> 후원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지출
빵 외 150건	빵 외 162건

>> 후원자

결연후원금 개인 후원자 김윤석, 김소연, 김택균, 남미현, 박찬익, 신익현, 신채윤, 심용진, 오경옥, 유경애, 유병규, 이영란, 임선숙, 정태연, 정희숙, 조재형, 진옥자, 최진주, 하석원, 하재덕(장산화학)

단체 후원자 공항리무진 달구지회, 밀알회(구경옥, 김란, 김미애, 김선희, 김성희, 안미경, 이경옥, 이미남, 이미진, 이숙희, 이순섭, 이영숙, 이영화, 이정례, 이해경, 임숙희, 장화숙, 정미숙, 지공업, 지경란, 최미경), 삼성SDS, 어린이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 KDB나눔재단

일반후원금 개인 후원자 강은수, 구은경, 국준영, 국준호, 김미경, 김복순, 김선주, 김성미, 김성영, 김성훈, 김연진, 김영희, 김용동, 김원석, 김재술, 김정우, 김정옥, 김지민, 김태훈, 김한나, 남상수(신도에스큐), 남궁명, 남경교, 도재연, 문지연, 민철규, 박경원, 박남진, 박노진, 박석우, 박시인, 박정애, 박학수, 박현실, 박혜경, 박희순, 백낙일, 백승로, 변새봄, 변수경, 변지영, 석지은, 손향미, 송영자, 신종훈, 심혜수, 아이티컴(김용성), 양순홍, 양종철, 양진성, 오영지, 유지연, 윤상문, 윤소원, 윤영은, 이계남, 이귀영, 이갈섭, 이덕재, 이미진, 이선영, 이은파, 이재유, 이충호, 이희성, 임우철, 임임영, 임지혜, 임하은, 전해천(나드리), 정궁희, 정문수, 정서연, 정예원, 정윤슬, 정지영, 정형준, 정효숙, 조형순, 최광남, 최민경, 최웅, 최유정, 하정민, 홍범식, 홍윤순, 황순덕, 황영은

단체 후원자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교육복지센터, 강서구립봉계산노인복지센터, 강서뇌성마비복지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공항리무진, 공항리무진 달구지회,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기쁜우리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밝은내일, 방원중학교,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방화동주꾸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부지회, 서울시강서노인복지회관, 서울도시철도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연지노인복지센터, 재향군인회, 코리아넷은, 큰꿈교육, 클래식스튜디오, 해피빈재향군인회, 청소년선도위원회, 큰나무교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해피빈

후원품 개인 후원자 김경희(꽃꽃이교실), 윤민희, 홍순임, 이영화
 단체 후원자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강서화훼, 고즈넉출판사, 굿엔기프트, 귀뚜라미복지재단, 꽃보라플라워, 꿈을주는과일재단, 두로카리스마, 들내음, 마산아구점, 방원중학교 학부모회, 솔공방, 애즈핏, 에레스레티피어, 영신교회, 이정상사, 지구북, 책의향기, 코코수, 큰나무교회, 파리크라상(목동점), 한국잡지협회, 한바다식품, 한솔패션

디딤돌 후원업체 방화떡방앗간, 임가네떡집, 파리바게트(화곡역점)

2016년 10월~12월 방화6의 선한 이웃

자원봉사자

- 무료급식** 강양순, 고준영, 구미자, 김경민, 김기학, 김수빈, 김수산나, 김신자, 김영자, 김용연, 김재하, 김지우, 김진수, 김준향, 김하은, 김혜경, 문동진, 박규호, 박문봉, 박진희, 변주임, 서예지, 석운기, 설해원, 송성희, 신옥자, 안영자, 유병행, 이강래, 이강분, 이광재, 이덕숙, 이동희, 이순희, 이승연, 이종민, 이종현, 이철원, 이호연, 임병채, 장근희, 장형주, 정귀자, 정일석, 조귀녀, 조재원, 주신영, 주유진, 진나영, 채원규, 최경순, 최영자, 최현숙, 추은자, 홍지호, 황남이, 한국공항
- 건강관리실** 김병욱, 안순자
- 영양식** 박영화, 영신교회, 큰나무교회
- 이미용** 강숙자, 고숙자, 고영옥, 권영순, 김해옥, 박정심, 신명희, 유영열, 이귀영, 이지은, 정명숙, 최광남, 최미경
- 가정도우미 파견 서비스** 광종열, 권정혁, 김선호, 김태환, 박용선, 오정석, 이만수, 임점수, 정준하, 제민중, 최중환, 허영범
- 어르신 정서 지원** 김건업, 김경래, 김경호, 김동연, 김은주, 라하니, 박근호, 박성빈, 박성은, 오주영, 윤경석, 장지은, 최은주
- 누구나강좌** 안혜경, 이윤경, 이정숙
- 아이-덤 123 프로젝트** 김경민, 김준하, 김혜정, 문유현, 오진욱, 이병우, 이정경, 이하영, 임현수, 최연수, 최현정
- ABO 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자원사업** 문미숙, 백승로, 서미현, 이선희, 이영자, 이윤주
- 동기유발프로젝트** 리더단 : 강희원, 김민지, 김원석, 김조은, 김하은, 서예지, 유연미, 이규성, 이연지, 이현진, 임은경, 정다운, 최민영
 선배기획단 : 김민선, 김수민, 노채연, 양수진, 유인지, 윤민영, 이현수, 이희승, 조정현, 최지민
- 미생(美生) 생명보듬이** 강양순, 권영자, 김선미, 김영희, 안순자, 정귀자, 최신정, 황혜성
- 이동목욕서비스** 김경래, 김순례, 김영미, 박병욱, 박은숙, 백종희, 백현수, 서영순, 석운기, 송점복, 신승희, 이명균, 이미연, 이윤희, 조형순, 최동진, 최영애, 최정임, 하은주, 황보영희
- 방화나눔축제 행사지원** 강경수, 강대분, 강선영, 강여경, 강지현, 고광선, 고영민, 고현범, 공혜민, 광종열, 국영재, 길재욱, 김경민, 김기학, 김동욱, 김류경, 김영규, 김문철, 김미경, 김민주, 김민지, 김상일, 김상호, 김성규, 김소연, 김수민, 김연이, 김예은, 김원석, 김재연, 김지민, 김지우, 김진호, 김정길, 김혜정, 노채연, 라연지, 마미숙, 박경철, 박미현, 박민재, 박성빈, 박소이, 박영화, 박한술, 박현식, 박희진, 방민희, 배유현, 백승민, 손일순, 손현국, 송재환, 송해령, 송홍철, 신인섭, 신필규, 심동현, 심수미, 심예지, 심경구, 안혜경, 양성은, 양수진, 양연희, 어승현, 오재복, 유상민, 유연미, 유인지, 유정금, 윤민영, 윤현철, 이경희, 이기준, 이민제, 이상숙, 이상훈, 이소은, 이연지, 이영숙, 이윤관, 이우진, 이정경, 이종태, 이종화, 이지원, 이하은, 이현수, 이희승, 임병술, 임원택, 임은경, 임희진, 장정욱, 장준용, 장학용, 전옥실, 정동필, 정서연, 정석경, 정준하, 조기훈, 조민용, 조성원, 조영순, 조인영, 조재윤, 주정환, 지우하, 진금희, 진재현, 차승주, 채재용, 최민성, 최민영, 최병권, 최영로, 최원석, 최유나, 최중환, 최지수, 최현숙, 하예경, 하정석, 한경남, 한승우, 한승철, 한영석, 한지훈, 한현정, 허영범, 홍지현, 황재경, 황현진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 하나!** 매월 CMS 경기 후원(자동이체)
- 둘!** 농협 하나로마트(방화점) 포인트 후원
방화6복지관(적립번호: 6181) 포인트 적립
- 셋!** 온라인 후원
네이버 해피빈 기부-'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검색
<http://happylog.naver.com/sjci123.do>
- 넷!** 물품(생활용품, 도서 등) 후원
- 다섯!**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업체 후원
상점, 업체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 후원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8-335770 (예금주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후원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 문의 : 지역사회조직팀 후원담당자 ☎ 02-2666-6181~3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2017. . . .

후원 신청자 _____ (서명)
 연락처 _____

후원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를 절취하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달해주시거나 ☎ 02)2666-618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것을 뽕내고 내것을 뽕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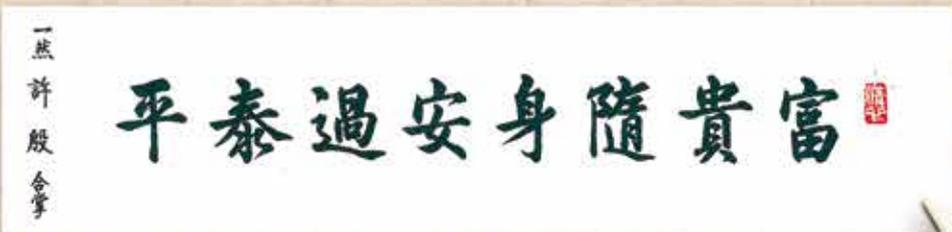
뽕내뽕

재능있는 우리 동네 주민을 소개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연하장을 써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허은'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마을 이웃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방화동의 명필가인 '허은'님이 직접 써준 글솜씨를 함께 보실까요?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정
새해에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부귀수신안과태평
새해에 부귀가 스스로 따라서 평안하고 태평스러운 한 해가 되소서

니뽕내뽕은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복지관에 전화(☎02-2666-6181~3) 또는 메일(banghwa@gmail.com)로 신청해주세요.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요!**”

살기 좋은 마을은 무엇보다 **깨끗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지역 학생들이
거리청소와 자원봉사를 함께 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누구나강좌' 박현주 강사님이 건네는 실천 한 마디 -



Kiturami 복지재단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23길 25 (방화동, 방화6단지아파트)
Tel. 02-2666-6181~3 Fax. 02-2666-6184 www.banghwa6.or.kr

